滯貨의悲鳴
實興金타령도남의일

대목장이라더니 이사람들이 모두 물건을 사러오는것인가 물주고 물건바꾸기를 저리 게할이드며서야 어디물건사 보겟나 저사람은 아까부터 신개이를하고서 여자는작을 올하고이지안나 아니다 장터 논찹더다 여엇하면 잘부리고 못부리는데 며칠전 면원씨을얻 주고 더수는것이 장판이다 파는사람 사는사람이 날고기는판에 어리벙이가 납칠고장이 아니니 천하여걸이팔 을경고 멸 버드는것도 우승임이아니다 섯달대목에야더할나위 이한때를 노치면 언제미

천불쌔나! 어저녁에 주판질하는 장사치들은 작년에 미워 미처까지 할오려는이도잇다 달렴도 한장년더버리면 두장남지안나 내일로 퇴발지나면 이해도그만이다 세상끼리라고는 이게 제일 일게라고 동으로 드려다논 『金』이 왜이리 안팔릴까 이말을엇어드면 비싼청어』를 저러케만히는 안드려다 놀걸 내일이면 만히사갈까 모레면 다팔릴까하던 새해가 턱미테닷케되엿스니 이야누가아라지금와서 남혼원망해무엇하나 어리석기만하지만깃고 이러케 손해볼수나 월급이올으는니하고 그러케들어도 연말이라고 시장에 차자드는이는적다 세찬대지의 선전이 이들의밥을 먹추게도하엿겟지만 물건갑이 웬만치비싸야 밥을

드려노흘게아니나 김한퉁에 이십전 고기한근에 유삼전 청어한마리에 십이전、좋은 한채에 일원사십전으로 작년에 갑절이나된다 멸머고 안먹고지내도 그만인것을왜 와서 꽈타주라 서울안에서 장이 공설시장만처서 이십여곳이넘는다 백화점에가는 손은 거리가머터 처다도못본다 오대는손을보면 에누리선수요 욕심장이바케 업건만 이번대목엔 엇저면마타노코 오던것은하나온답 다른게아니다 올해에는 주머니가 워낙비엿스니 에누리타도하고 시비타도 걸어보며 장에갈용기가 업서진것이다 정바닥이 쓸쓸하니 우리의부억이야오죽쓸쓸하라 이해의 마다른장터는 이러케부는 찬바람속에서 저므러간다

市場의嘆息

富山縣下雪崩慘禍에 朝鮮人도57名遭難
十六名卽死、二名失踪、生埋十六名도絶望!

【大阪支社特電】 지난이십사일 부산현신천군사합곡(富山縣新川郡仕合谷)기픈산중 일본전력회사공사장에서 눈사태가나서 일을하고잇든 인부일백삼십구명이 파무첫는데 이십팔일 대판에잇는 그회사에드러온 소식을드르면 그가운데서 조선사람도 오십칠명이나잇섯다 오십칠명가운데서 생존자는 스믈세명이며 죽은사람이 열여섯명이나되고 부상자는 두명이며 행방불명자가 열여섯명인데 이행방불명자도 생존은절망되는터이다 본적과 성명은 조사중이다

銃後의이熱誠!
飛行機、機關銃等의獻納式、數十回에亘하고
獻金五百萬圓臺肉薄

사변하제이주년 총후의애국열을통하야 비행기 기관총등수십 회가잇섯다 은 굉장하거니와 특히조선에잇서서의 적성은 놀라운바 잇서 서국방헌금 위문금등조선군애국부에서 바든것은 다음과갓다

▲헌금은십일월말일 한계사백구십삼만육천팔백칠십삼원구십삼전 ▲헌품으로서 금속제품 자동차 유지 담뇨등 다수 ▲위문품으로서는 위문대주머니 식료품등다수 ▲육군병기헌납식은 일개년

軍人家族의 新年慰安會

경성군사후원련맹에서는 신춘 이일부터 오일까지 부민관에서 출정、응소군인 유가족과 상의군인의 신년위안회를 열기로되엿는데 복지의문을하고 도라온 중마소좌(中馬少佐)의 황군분투상황에대한 강연도 잇슬터이다

龍山驛에行旅屍

이십구일 오전아홉시반경 용산역 삼등대합실에서 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걸인가튼 남자가 죽어너머저 대소동을 이르켯는데 소관용산서원이 검시한결과 급성 심장마비로 죽은게판명되여 신원을조사중이다

仁術의墮落
命在傾刻의轢傷者
府民、大學兩病院이治療拒絶
患者、畢竟路上絶命!

구루마에 치어서 빈사의 중상을입고 명재경각인 환자를 관립(官立)병원두곳에서 거절、개인병원에실고가는사이에 사망해버린변괴가잇다 이십구일아침여덜시이십분경전농정(典農町)이백이십이번지의오호 임윤상(林潤相)(一六)과그이웃 李호원유장(元裕璋)(一六)두소년은 일리인 황금정(黃金町)일정목성동(城東)전기상회를향하야 자전거를 타고서 이야기해가면서 진행중 황금정오정목 이백십일번지 아페이르럿슬때 두소년이타고가던 자전거『베다루』가맛대여서 그만 두소년이 쓰러지자 공교로히 그곳을지나던 한남정(漢南町)유백오번지 한창정미소 정문이(鄭文伊)(三六)가 끌고가던마차에 임윤상소년이 머리를치여 중상을당하엿는데 정문이는 즉시황금정오정목 파출소에 계출하고 파출소원과함께 중상자를 자동차에실고 부근부민병원(府民病院)에실고갓스나 년말휴가라 의사가업다는 구실로거절을 당하엿다 할수업서 다시 대학병원(大學病院)에실고갓스나 역시맛찬가지로 거절하야 낙원정 권영우병원으로 실고가는새에 때가 느저 환자는도중에서 벌서죽어버리엇다 그래서 시체는다시황금정 파출소에 가저다두엇는데 인도상으로보아 중한 환자의 응급수당을 거절할수업건만 아울며 관립병원에서 이러케 명재경각의환자를 거절함은 사무상체제로만 보드라도 용서할수업다하야 경찰과일반이 그들병원의 횡포에분개하고잇다

府民病院談
『잘못햇습니다』

잘못되엿습니다 숙직하는간호부와 숙직원들이 실수로 잘못햇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불상사가업도록주의하겟습니다

南支軍에郵便
片紙와藥書만

제일선장병에게 보내는 군사우편은 당분간 남지나방면으로 가는것은 편지와 엽서에한하고 신문잡지 기타인쇄물등은 취급하지안홀것으로 일반의 주의가필요하다

安東港務取締
朝陽間協定成立

【安東二十八日發同盟】안동현은 신의주와 동일지역에잇던 관계로 금년오월일일부터 만주국해항취체법(海港取締法)이 실시한후에도 신의주와가티 조선해항취체규측이적용되여서 해운업사와 만주국세관에 불편한점이만턴바 이십팔일만주국강전(岡田)안동현세관장과 조선복부(服部)평안북도경찰부장과의사이에 해항취체에 관한협정이성립조인을 마치엿다 금후안동항의항무취체는 안동세관이 만주국법령에의하야 행하게되엿다

그대로춥다!
今朝 最低 零下十五度七

이십구일 아침여섯시현재 경성지방최저온도는 또한번 뚝떠러저 내려서 영하십오도칠이다 도입문이 더내려갓다 그리고 평년이날의 기온은 영하칠도구분이므로 평년기온에 비교하면 칠도팔분이나 해마다 추위는 더하여 가는 모양이다 작년겨울의 최고기록이 일월이십일에 십구도로 떠러젓다고 도사온도세가 오리라고한다

금년추위로는 아직까지의 최저기록이다 작년오늘의최저기온이 영하십오도칠이엇스니까 작년이날보다 사분이나 뒤여내렷다 작년추위가 상당하엿스나 이날만을 따지면 작년보다 더춥고 평년보다는 훨신더추우 금년추위의 결정은 아직멀은모양이다 그러나 경성측후소에서는 이번추위는내일쯤으로서 한고비가 지나서

그런데 한강(漢江)는 튼튼히 어러서 그동안 통행을 금지하고잇던 소관 용산서에서는 금이십구일부터 일반의 통행과 스케-팅을 허가 하기로 되엿다

漢江스켓許可
꽁꽁얼어부텃다

益山面書記兩名
五千圓橫領潛跡
入京한듯해各署搜查

이십륙일전북익산군의산면 (益山郡益山面)서기 박태종(朴泰鍾)(二六)과 강임현(姜任鉉)(二五)두사람은 그면사무소공금오천여원을가지고 종적을감추엇는데 경성에 드러온형적이 잇다하야 시내각서에서는 회류가를 중심으로두 사람의행방을 엄탐중이다

洋服詐欺犯

신안양복사기——이십사일오전 열한시경 시내마포소학교 훈도 성재덕(鄭在德)(三一)씨의 하숙인통의정(通義町)일백삼십륙번지의 일호에 어느소년이차저와서 학교소사인데 정선생이 방에잇는 양복을달라더라하므로 주인이 내여주엇는데 나종에보니 어느자가 사기를해간것이 판명되여 종로서에 계출하엿다

木材도적

부내삼판통(三坂通)에잇는겸창보육원(鎌倉保育院)창속에너어두엇든 신축할재목이 매일밤마다 수십개씩업서짐으로 수상히역이고잇던중 이십팔일 새벽세시경에 두명의장한이 구루마를끌고와서 재목을훔처가려는것을 미리부터 직히고잇든 용산서원이 체포하야 본서로인치하고 취조한결과 이들은 부내이태원(梨泰院町)일백구십오번지김순만(金順萬)(二○)과주소부정의신태식(申泰植)(二○)으로 매일밤마다 훔처내인재목이 시가천여원어치나된다 고한다

못미들이웃집
五百圓을훔처가

이십칠일 오후여덜시경 부내

今曉·本町商街大火
友井尙文堂倉庫燒失、損害十六萬圓

이십구일오전네시경 시내본정(本町)이정목에잇는 문방구상점우정상문당(友井尙文堂)뒷채창고에서 불이 이러나 창고두채를 태우고 여섯시경에야 진화되엿다 창고에는 문방구가 가뜩들어잇섯는데 거의전소되여 상품의손해만도 십륙만원가량이나된다고한다 원인은 방금조사중인데 연말이요 겸해서 상점이출비한곳이만큼 큰소동을 이르켯스나 소방대의신속으로 연소는 업섯다 화재보험은 십일만오천원이라한다

消防手負傷

본정상 당의 화재현장에는 축시소방서원과 본정서원이 출동진화에 노력하엿는데 소방수권국현(權國鉉)씨는 다리와 팔등에 중상을 당하엿다

惠化町火災
文化住宅燒失

이십팔일오후열시이십오분경시내혜화정(惠化町)칠십사번지의육호전화매매상 장선영(張善永)씨집에서 불이나서 양옥한채조사십오평되는 문화주택을 전소 동오십분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삼천삼백원가량이다 보험에대해서는 방금조사중이나 부어케서 불이난것이 절저치못하여 불이난것인듯하다고한다

귀찬흔白放
갈곳업스니도가둬달라고
失職少年警察에哀願

이십팔일 아츰 서대문서 사법계에 전남영광군 영광면(靈光面)에사는 박창희(朴昌熙)(一八)라는소년이 차저와서 머고잘데가업스니 유치장에 너어달라고 애원하엿는데 이소년은 얼마전 버리자리를구하야 상경한후 취직을못하고 헤매이든동안 수일전 연말경계에걸려 절도혐의로 동서유치장에 드러갓다가 무죄석방은되엿스나 갈데는업고 길로도라단기면 거리부랑자 신세만 되겟다 하야 유치장에서 죽지게하여달라고 하엿스니 돈이엄때집에오려고 하엿스나 동서에서는 이소년의정상을 불상히여겨 본적지에 조회하는한편 보호를하고잇다

羅津、伊太利間
航路를開設

【淸津電話同盟】삼릉(三菱)상사는 우방(이태리)와 만주국동부의 관문항(關門港)인 나진(羅津)간에 항로를 신설하다는 소식이 최근에 드러왓다 그에의하면 만주국 이태리간에 체결된 통상조약에 의하야 만주국 특산물의 수출에대하야 이태리로부터 기계제품을 수입하기로되여 상품에서이양국간의 회물을 마련보기로하엿다 이항로의 개설시기는 명춘삼월경이 될것으로 당분간 이개월에한번씩 부정기항으로 실시할것이다

漢江에投身
어름판에떨어저即死

강물에 투신한다는것이 어름판이되여 두개골이 부서저죽은 희한한 자살사건이잇다 이십구일오전일곱시경 한강인도교밋어름우에 두개골이부서저 죽은시체가잇는것을 통행인이발견하엿는데 소관 용산서원이검시한결과 삼십사오세된 남자로 얼골로보아서는 조선인이 철교우에서 내려다보면 퍼런물가티보이므로 투신한것으로 판명되어 방금신원을 조사중이다

支那街에怪漢

지나가(支那街)의괴한——이십칠일밤열두시경 종로서원이 관수정(觀水町)지나인거리를 경계하다가 판수정섭입번지 지나인진회지(陳化之)의 집에서 나오는 수상한청년 네사람을 불심심문하자 꼿그들은 사방으로나노아서도주 겨우그중한사람인 공주(公州)출생 양재항(梁在恒)(二二)을 검거하야왓는데 회중에는십백이십원의 대금을 가지고잇스므로 추궁중이나 일체입을열지안는다 그래서동서에서는 지나가의 비밀을가진 괴한을 계속취조중으로 흑아편밀수범인이나 아닌가한다

도라온蹴球霸者
驛頭에盛大한歡迎陣

저무러가는 무인의 스포-스계로화야금 흥분과 열광으로써 물드린 축구조선의 대표군인함흥의 영예스러운 우승배를선두로 안세우고 감독 현정주(玄正柱)씨 인솔아래 작이십팔일오후세시사십분 원기왕성한가운데 경성역두에 다엇는데 개선군을 마지하는 역두에는 체육계관계 사동의 성대한 출영이 잇섯다 일행중 보전축선수 김용식(金容植)군을 비롯한 다섯명은 동경으로향하고 조용해(趙龍海)군은 리대구에 떠러저서 열두명만이 경성에 도착하엿다 년래의 숙망을이룬 용사들의 얼골에는 새삼넘처 흐르고 잇섯다 일행은즉시 조선신궁에 참배한후 서울축구협회 주최로 경성역이층식당에서열린 축승환영회에참석하엿다

歡喜의祝勝會
昨夜、蹴協主催로

축구개선군의 축승환영회는동일오후다섯시반부터 경성역식당에서 축협주사 이영민(李榮敏)씨사회로 열리어 회장 고원훈(高元勳)씨로부터 지난십팔일에 바로이자리에서 제군을 보내는장행회가 열리엇슬때에부탁한바 스포-맨의본분을준수하고 망영스러운패권을획득하고 도라온 제군을 치하하여 마지안는다는 의미의환영사가잇슨후 래빈측으로박승빈(朴勝彬)씨의 축사가잇섯스며 감독현정주씨의감격에 넘치는답사가잇슨후 화기애애한가운데 동일칠시반경에 산회하엿다 (사진은 경성역두에나린축구대표)

運動界人事·集會

▲玄正柱氏(朝鮮蹴球軍監督)凱旋人事次 來社
▲朴義鉉(同마네저)同上
▲鄭斗鉉君(東京白友蹴球主將)과 吳三圃孃의結婚式은 三十一日午後一時 京城公會堂에서擧行

色鉛筆

올해도 저물어가면서 그동안 칩지안튼 추이도 졸연히 혹심하야 금년추이의 빗도갑호려는듯십다 ▲오늘새벽이 영하십오도칠분으로 서울추이로는 금년의 최고기록이다 이런추이의 밤을 자지못하고 추이와 싸우면서 수고하는이들을 생각하면 ▲밤거리를직히며 연말경계를하는 경찰관 노픈하루에서 어느곳에불이 붓지나안나하고 경계하는소방소원의 두가지를들수잇다 얼마나감사하랴 ▲여간 밧븐길이라고해도 길을막고 주소성명을뭇는댄들 어찌 불평이야 잇슬수잇스랴 ▲연말경계경관의 수고가 보담잇게 민중은 경관의 뭇기에 압서 더친절하야 그친절이 경관의마음을 더부드럽게 하여야할것을 생각하라

貴薬サフラン配合 香 Kōtan 丹 口中香料・携帯必中懷

京城府懸賞募集
鮮銀압噴水池圖案

경성부에서 문제만턴 조선은행압 『로-타리』를 명춘해빙기를기다려 본격적공사에 착수하기로되엿는데 이『로-타리』를아취잇게하기위하야 한가운데다분수지(噴水池)를 만들기로되여그도안을 일반에게 공모하기로되엿다 마감은명년일월이십팔일 상금은 일등백원이며 이등오십원 두명이다 자세한것은 부토목과공무계(工務係)로 문의하는것이조타

曆

▲十二月三十日(金曜)陰十一月九日 ▲壬支丙申 ▲日出午前七時四十七分▲日南中午後零時三十六分▲日入午後五時二十四分▲晝間九時三十七分▲月出午後零時十四分▲月入午前零時二十四分▲滿潮(仁川)午前十時三十分午後十時四十五分

天氣豫報

槪況 七百八十四미리의 高氣壓은 北支那에 퍼저잇서서 그로말미아마 氣壓은 漸次로 朝鮮을거처서 本邦方面으로나 저저잇다 黃河沿岸에는氣壓配置가좀 不安定하다 滿洲와 朝鮮은 日氣가 조흐나全南沿岸에는 눈이조금 오고잇다 表日本은 晴 南日本은 曇 中部以北에는 눈이오고잇다

豫報 ▲今夜는 晴 一時小雪이나릴 모양이며 明日은晴 一時曇

廿日最高 零下 八度
同 最低 零下 十二度八
今朝最低 零下十五度七
今日正午 零下七度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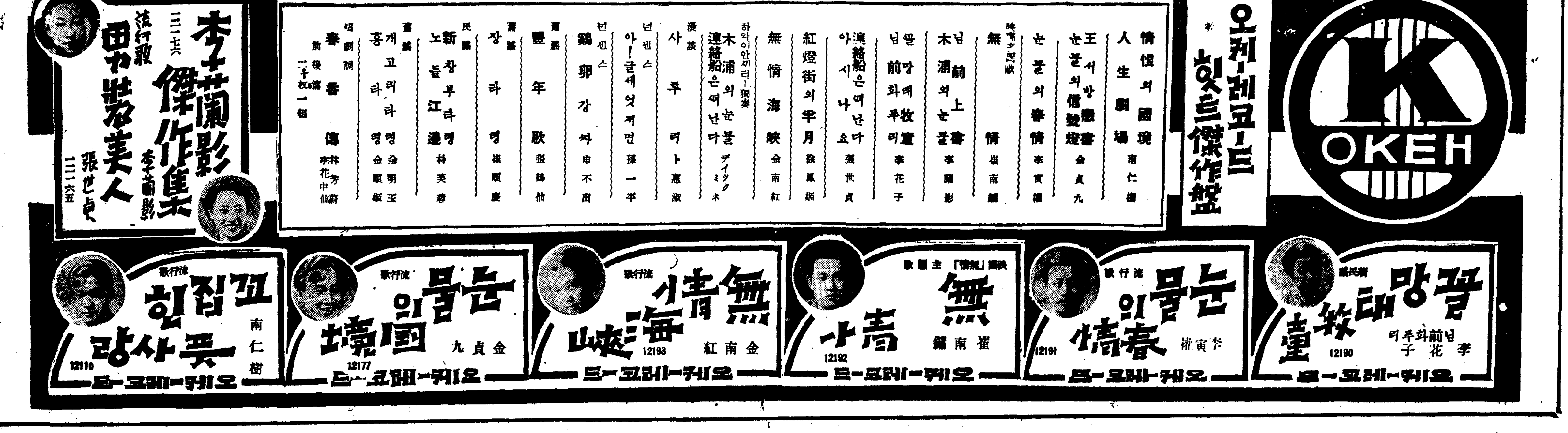
朝鮮信託株式會社
第十二期決算公告
貸借對照表 (昭和十三年十一月三十日現在)

資産	**圓**
固有勘定	
拂込未濟資本金	7,500,000.00
國債	[illegible]
株式	[illegible]
所有不動産	[illegible]
國債其ノ他有價證券擔保貸付金	[illegible]
不動産抵當貸付金	[illegible]
公共團體ニ對スル貸付金	[illegible]
預ケ金	[illegible]
郵便貯金	[illegible]
立替金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營業用土地建物什器	[illegible]
現金	[illegible]
計	[illegible]
信託勘定	
國債	[illegible]
地方債	[illegible]
外國證券	[illegible]
社債	[illegible]
株式	[illegible]
國債其ノ他有價證券擔保貸付金	[illegible]
不動産擔保貸付金	[illegible]
公共團體ニ對スル貸付金	[illegible]
保證貸付金	[illegible]
信用貸付金	[illegible]
預ケ金	[illegible]
不動産	[illegible]
生命保險債權	[illegible]
債權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公社債利息其ノ他未收入金	[illegible]
未經過損金	[illegible]
現金	[illegible]
計	[illegible]
合計	[illegible]
固有勘定	
資本金	10,000,000.00
法定準備金	331,500.00
別途積立金	300,000.00
退職給與基金	100,000.00
職員及傭人身元金	[illegible]
保證金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未拂利息其ノ他	[illegible]
未經過利益金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內前期繰越金)	[illegible]
計	[illegible]
信託勘定	
金錢信託	[illegible]
金錢信託以外ノ金錢ノ信託	[illegible]
有價證券ノ信託	[illegible]
金錢債權ノ信託	[illegible]
土地及其ノ定著物ノ信託	[illegible]
計	[illegible]
合計	[illegible]

取締役社長 谷多喜磨
取締役會長 韓相龍
專務取締役 讚井源輔
取締役 朴榮喆
取締役 閔大植
取締役 張稷相
取締役 森菊五郎
取締役 杉村逸樓
取締役 三木淸一
取締役 山口重政
監査役 金季洙
監査役 金漢奎

淋疾化膿療法劑 A-G錠 天一製藥株式會社 天一藥房

冬物大處分 男女兒洋服オーバ 男女學生服 婦人洋服オーバ 各種洋服生地 毛絲及手藝材料 地方注文迅速酬應 京城府寬勳町(安國町四街角) 東一商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九四〇番 振替京城一二三七〇四番



出漁中의漁船遭難

漁夫六名水中孤魂

아직行方不明中의船舶도多數

退潮近海上의悲慘劇

【退潮】 한남 퇴조향에서는 지난 이십삼일에 어민들이 평일과가티 부근한바다에 나아가서 고기잡이에 분망하고잇던중에 돌연히 모진 바람이불며 파도가 쳐야차여 고기잡이 배들은 불의에 조난을 만나 바다우는 일대살풍경을 연출하고잇섯다 그리하여 천신만고의 표랑을겪고 무사히도라온배도잇고 혹은 풍파에 휩쓸려 표류되여 멀-리다른포구에 불시상륙한배도만흐며 아즉것 행방불명인배도 적지안타고한다 그중에서 원산에사는 이시절(李時節)의 수저망선 선원 일곱사람을 실은배가 그만파도에 전복되여그중여섯사람은 무참히 칠몰되여 쓰라린 최후를 마치고 그중에서 한사람이겨우 전복된배동에기어 올라서 명재경각으로아우성을 치다가 지행으로 부근순풍과하고잇던발동선의 구조를바더서 다행히 살아도라왓다고한다 전기 칠몰되여죽은사람들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가타

德源郡北城面廣石里朱鎬烈(四一)
德源郡北城面野太里李鍾大(三七)
德源郡北城面野太里李鳳善(二三)
德源郡北城面野太里姜春甲(三八)
德源郡北城面新津里金允吉(二〇)
通川郡下舍津洞 金在源(二七)

그리고 살아온사람은 신성갑(申聖甲)(三九)이라는 사공인데 그는부모도업는 고독한사람이라고한다

歲暮水陸의慘變

漁船遭難·荷車顚覆·火災等等

中和邑에는火災

損害額이約壹萬圓

【中和】 지난이십팔일새벽다섯시경에 중화읍내 중심지인 낙민리 기경상점(基京商店)에서불이 이러나 일시 대혼잡을 이루엇든바 당지소방대가 출동하야 진화에노력하엿스나 엇지 동상점이 전소되엿는데손해액은 약일만원이라하며 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에잇다

乞人의凍死

【盈德】 경북영덕군영덕면노물동(盈德面老物洞)에서는 지난이십칠일오전일곱시경에 주소미지의남자걸인 일명이 당시리모(李某)의 정어리공장에서어러죽엇는데 나히는 이십세가량인데 수일전부터 그동리에서걸식하든중 줄한으로그와가티동사하엿다고한다

豊上驛工事中

人夫慘死

【退潮】수일전 함경선 퇴조역(咸鏡線退潮驛)과 상호(上湖)역사이에 신설할풍상역(豊上驛)의 공사비 십팔만육천여원의 공사로 대석조(大石組)에서 청부를 마터 대석조배하 대서(大西)씨가 공사책임자로 방금시공중인풍상역공사현장 풍상리(豊上里)역신설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가산에서떠러지는 돌에마저서 중상을입엇는데 즉시로 인근퇴조고제병원에가서 응급치료를 바덧스나 아무효과도업시 약삼십분후에절명되엿다 그는 전남북도진안군진안면구룡리(鎭安郡鎭安面龜龍里)김성춘(金成春)의차남되는

舍人面會計員

公金축내고逮捕

【沙里院】 녀관경계에 여념이업는 사리원경찰서에서는 얼마전에 봉산(鳳山)군내에서 도부면으로 유명한사인면회계원을 유치코 극비밀리에 사법주임도변(渡邊)씨 자신이 담임취조를거듭하는중인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동회계원은 얼마전부터 자기정도에 넘치는생활까지 사리원에두고 호화로이 지내든중 드디여상당한 다액의 면공금을 축내이고 어데론지 도주하여 종적을 감추엇슴을 체포하여다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라고하는데 특히봉산군내에서는면회계원으로 공금을 횡령라 범망에 걸린예는 십년이래 처음되는 사건이라 일반에 주목은 매우크며 자세한내용은 차츰취

장작商人에鐵槌

暴騰價格抑壓策

平壤驛構內에서撤去命令을밧고

急速處置로落價는難免狀態

【平南文社發】 연료중왕좌로 공성가격이업는것을 기화로 뭇칠술모르고 앙등을계속하던 평양의장작갑슨 대설후에 휩쓸러오는 혹한에 일종 기세를도두어 하관에 십이전을하게까지 되여잇서 경제경찰에서 그뒷사정을 내사한결과 평양의 장작갑슨 유철인이 대신탄상인에게 농락되여 그들의대로 올혹이고잇는 사정이 판명되엿다 즉 전기유철인의 신탄뿌로카-들은 일혹이 초가을부터 지방으로다니며 대활동을하여 다량의장작을 매점하여서 평양역과 서평양역구내에 산가티쌋처노코 연료기근의 와중에 홀로 장작과솔가지만공정가격이업는데 장작을 자기네가 독점하여잇는것을 기회로자기네가 올너고지프대로 갈팡치게 정하여 도매를하므로 소매상들은 그지시대로 의 갑을바더오것이라고한다 이러한 사정이최근에와서판명되여 말성이이러나자 비로소 철도당국에서도 전기상인들이 철도용지를무단으로 사용하고잇는것을알고 이삼일내로 평양역구내로부터 물러나가라는 것을 엄명하여 신탄상들은 금작이 이것을 처분하지안흐면안되게되엿고 아울러 경제경찰의 경고도잇서서 결국장작갑슨 수일내로 일할오푼가량의 약간한저락을볼것으로 예상된다

極東猶太人民會

哈市서二回大會開催

【哈爾濱】작년이맘때 극동유태인거류민회(極東猶太人居留民會)를 하얼빈에서결성하고제일회대회를 여럿다는데 잇거니와 금년에이르러서도 극동유태인거류민회에서는 이십륙일 하얼빈 유태교회당립제삼십오주년을 기하야 외국두도가상무구락부(外國頭道街商務俱樂部)에서 제이회 대회를 열엇는데— 전년에 제일회대회에 비하야 멀리각지로부터 유태인 대표인들이 참집하야— 일、만양국과 [illegible]을 대항할기세를 올리고잇는데 각지에 대표자는 다음과갓다 합빈七 대련二 상해二 하이라루一 지지하루一 봉천一、 청도一 청진一 신경一

年末警戒餘勢로

賭博團捕縛에進出

【鐵原】 철원경찰서에서는 지난십이월 이십일부터 연말경계에 안전을기하고 이십칠일 대목장까지도 무사히 지낫슴으로 이십칠일밤부터 철원군내 혹가잇는 도박단을 탐명하기위하야사법주임 지휘로 극활동을 개시한결과 대부분의 도박단 십여명을 일망타진하야 버리엿다는바 그중에는 모회사사원도포함되여잇는듯하다고한다

滿川里에火災兩件

【滿川】 지난이십칠일 오전열한시가량에 (金聲…)씨방에서 불이 일어나일쳐는 사나운 불길은 인하야위험하엿스나 그곳소방조의 필사적노력으로 약 두시간후 진화되엿스며 그날오후세시쯤 송(宋…)씨방에서도 불이 일어나 약한시간후 진화되엿는데 원인은 실화와아이들의 성냥장난으로 판명되엿다한다

貧民에白米를施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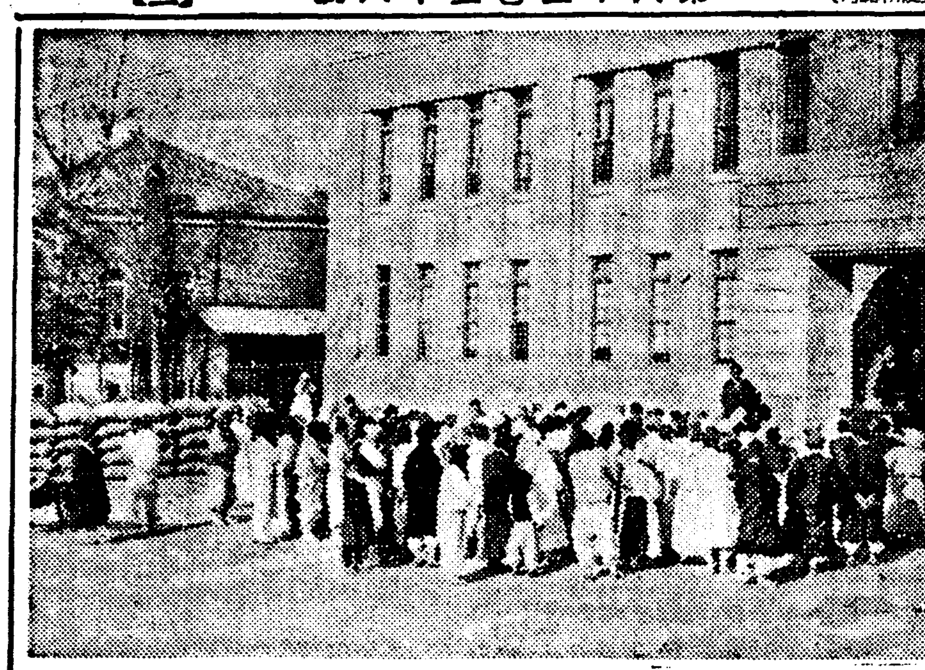
嶺美金泰善氏美擧

【嶺美】해마다세밑이되면 백미이백두식을 빈민에게논아주든김태선(金泰善)씨는 금년도백미이백두를 빈민에게분급하엿다는데 씨는 비단이뿐만아니라 타방면에도 숨은미거가만타한다

荷物車墜落顚覆

人夫等十名死傷

安邊郡下鐵嶺에서



【新高山】 이지음 경향각지에교통사고가 종종이러나서 일반의 불안을 자어내고 잇거니와 또다시 자동차전복으로 사상자가 열명이나 생기참사가 돌발하엿다 십이월이십칠일오후다섯시사십분경에 함남안변군위익면고산리(安邊郡衛益面高山里)동쪽근방 철령(鐵嶺)을 내려오는 트럭(江八八一號)은 대두를만재하고 제섯인부 팔인을태우고 운전수안일태(安一台)(二四)가 운전하여내려오다가 커부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야 인부중 이홍근(李弘根)(二〇)은 두개골이파열되여직사하고 인부김구섭(金九燮)(二四)이는 경안부이부러저서 중상을 당하엿스며 조수박의선(朴義璿)(二〇)이만수(李萬壽)(二八)과 인부 일곱명은 경상을당하엿는데 급보를접한 신고산경찰서 주재소 산본(山本)경부보와 서원파 고산의원공의 임병일(林炳日)씨는 현장에급행하야 원인을 조사중이며 중경상자는 응급치료중인데 차체는물론파손되엿고 주상자는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博川敎會의美擧

捐補金으로獻金

【博川】 동아의 평화를위하야장기건설의 체제아래잇는 오늘박천기독교회에서는 지난이십오일 『크리스마스』날에 어린소년소녀와 일반교인들의 연보(捐補)한 돈 십일원구십오전을 황군의위문금으로 박천경찰서를 경유하여 헌납하엿다는바 박천교회에서 일작이 신사참배와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다는 미풍에는 일반에게 만흔 감격을주고잇다

咸州郡民또陳情

城川江廢川敷地貸付해달라고

【咸南文社發】 함주군수해면용장리(龍藏里)등 사개리주민 대표 주균찬(朱均燦)등 일백사십명은 연서로 도농사시험장 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등의 용지에 경지를 일헛스니 성천강하천부지(城川江河川敷地)라도 주어서 생도를 잇게하야달라고 진정서를 보냇스며 이십칠일에는 주민사명이 상도하야 각관계과장을 방문하고 탄원하얏다 그진정한사유는 그들일백여호는 지난소화오년이래 연다라 설치된 농사시험장 종축장 원잠종제조소등의부지에 경지 십여만평을 팔엇다 팔때에는 국가사업이라는 대국적입장에서 모두 시가의 육할내지 칠할의 헐한갑스로 파럿는데 그후에 토지시세가 올으면서 도저히 그돈으로살수가업게되얏다

그러나지주들은 다른곳에가서라도 대지(代地)를 구하얏지만은 그에따르든 소작인측 진정인들은 일조에 경작권을 일케되얏스며 농지령(農地令)의 발표로 소작권을새로엇기에는 극히 곤난하게되야 일백오십호 오백여주민들은 유리의 참경에빠지게되얏다 다행히 성천강개수공사로인하야 폐천부지가 삼만평이나 생기게되얏스니 당국에서는 이생도막연한주민들에게 이것을 처분하야주어서 생도를잇게하야 다는것이다

優先權을考慮

貴島土木主事談

이에대하야 토목과귀도(貴島)토목주사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성천강 폐천부지의 처분은 아직도 결정되지안코 잇슴으로 무엇이라고 말할수는업다 이가튼 딱한사정이잇다면 금후처분하게될때에 우선권(優先權)은 줄수잇슬것이다

四百細民의喜悅

開城府에서金品配給

【開城】 개성방면 위원 연합회(方面委員聯合會)에서는 지난이십사일까지 각방면 위원이활동으로 이천칠백팔십구원 칠십칠전의 동정금을 모집케되엿든바지난이십칠일 오전열한시 개성부청압 광장에서는 주립과 쌀호는세궁민계급을 모아가지고 송부윤(宋府尹)의 따듯한인사와압깨백미급 동정금배급을 실시한바잇섯다 이날동정을받은 호수는사백이십여호라하며 이에달린 식구가 이천여명이리한다 그런데동정금품급 표준은 다음과가티를한하아 배급하얏다한다

家族數	配給米高	配給金高
第一種細民		
一人─二人	五升	一圓
三人─四人	七升	一圓
五人─七人	十升	一圓五十錢
八人─十人	十二升	一圓五十錢
十一人以上	十五升	二圓
第二種細民		
一人─二人	三升	五〇錢
三人─四人	五升	五〇錢
五人─七人	六升	一圓
八人─十人	八升	一圓
十一人以上	十升	一圓五十錢

(사진은금품배급하는광경)

茂山道議補選

一月廿五日執行

【咸北文社發】 함북무산선출의도회의원윤석필(尹錫弼)씨의사임에 의한 보결선거는 명년일월이십오일집행키로 결정의지시가 지난이십칠일도로부터 고시가잇섯다

年賀郵便이激減

【馬山】 마산우편국에서 취급한 금년 연하우편은 비상시국을여실히 반영하고잇다 제일회발송 파백사십통박게 아니되엿고 이십사일까지의 통계는 일천사백통이라는 극히적은수짜로 우편국에서도 예상이외의 감소에놀랏다한다

照明彈

결산기인 연말이나 사람의 마음까지초조하기짝이업다

◇

마음의여유도업는 살얼음판인데 날세조차 흐득하니 육지에바다에 사고가 겹처난다

◇

조고만실수가 대개 큰사고의 원인이되며 실수는 마음의긴장이나 마음의해이나 모다사고의 원인이될수잇는것

◇

그럼으로 사람은 빳당히 백척간두에진일보로 언제나 침착과 평정을일허서는 안된다

◇

더구나 몸이 위험성을 가진 직업에잇는사람으로서야 섯달대목이라고해서 추호의방심인들 용서할수잇스랴

◇

바다에서 육지에서 눈물겨운 사고의참화를 절멸시키자면 먼저 마음의긴장이잇서야한다

長篇小說

林巨正【195】

洪碧初 作
仝 熊超 畫

평산쌈 (三五)

「소인이 포청에 잡혀온뒤 인제 더살시를못하구 죽을것을 생각하온즉 자연 회심이 되와 반나절동안 굴죽가튼 방에서 일생 지은죄를 가지가지 후회하옵는중에 소인이 죽기전에 꺽정이를 잡아서 나라에 바치랴는생각이 낫소이다 처음 생각이 나올때는 소인이 죽을바엔 꺽정이까지 끌구 가치 죽으라는속담의 률귀신사두 엇지안하잡구 또 꺽정이를잡아바치구 소인은 사(赦)바더서 살아나가라는 요행을 바라는 욕심두 엇지안하사오나 나중에 결심까지하옵기는 꺽정이와 가튼 나라와 백성의 큰화근을 업새구 죽사오면 이세상에서 옳흔사람노릇은 못하얏슬지라두 지하에가서 그른진되기는 면할듯 생각이들어서 말을 여러번 도로러먹엇소이다 포청에서 문초를바들때 소인이 본성명을 대옵구 소회를 말씀하옵구 꺽정이잡을 계책까지 다 알외옷지이오나 서울안에잇는 한온이 여당(餘黨)중의 좌우포청군사들과 여형약제(如兄若弟)하게지내는것을 이 포청소식을 알아내서 꺽질 기별하옵는까닭에 포청에서 일이 미처 결정두나기전에 한온이와 꺽정이의 귀에 말이 들어갈 염녀가 불구하와 소인이 구차하은 거짓말루 문초를 느지옵구 영감마님아페와서 당돌히 원정을할외오니 하정을 통촉하옵시기 바라옵내다」

서림이의 말이 빈구석이 업서서 거짓말 듯든데 집이난 포도대장 귀에도 그럴사하게 들릴만하얏다.

「꺽정이가 지금 대체 어듸잇느냐」

「내일밤까지는 청석골 잇슬것이옵고 모레아칙에는 달은데루 갈것이외다」

「달은데란 어듸냐」

「평산 남면 마산니에 사옵는 대장장이 이춘동이집에 가서 여럿놈이 모이옵니다」

「무슨짓을하랴구 거기 모이느냐」

「글피스무엿샛날 이춘동이집에 모여서 의론하온뒤 재녕이나 해주 땅에 나가서 숨어잇다가 신임봉산군수 이흠예(李欽禮)와 짜운이 해주루 연명가실때 그 행차를 엄습하올것이외다 봉산안전께서 신계현령으로 계실동안 청석골두목을 대운 잡아죽이신일이 잇슴는데 승탕되신 이번기회에 전날원수를 가프면 위엄(威嚴)이 날뿐아니라 호화이 업다구 봉산안전을 살해하랴구 별르옵내다」

「너두 평산으루 갈걸 못가구 잡혓느냐」

「예 소인두 스무엿샛날 마산니루 오란는 약속을 바더섯소이다」

「꺽정이를 잡아바칠 계책이잇다니 말해봐라」

「조선에서 용사군수를 평산부사나 또는 금교찰방에게 비밀히 영(令)을 나려서 스무엿샛날 마산니를 드러치게 하옵시면 대개는 잡힐것이외다 만일 소인이 가서 내외망웃하오면 실수업시 꺽정이를 잡게습지요만 조정에서 소인을 밋구 보내실리가 업사올습니다 이번에 혹 일이 실수되어서 꺽정이를 잡지못하구 놓치옵더라두 잘못 소인을 소인에게 맛기시면 꺽정이 칠형제패를 내년 일년안으루 다잡아 바치겟소이다」

「꺽정이 칠형제패란 무어시냐」

「꺽정이와 의형제를 매진놈이 모두 일곱이온데 일곱중의 꺽정이까지 너더슨 무예가 출중하외다」

「그일곱놈이 이번에 다 마산니에 모이느냐」

「엣놈 안빠지구 다 모일것이올시다」

「너는 그의형제 틈에 끼지안햇느냐」

「소인이 적굴에서 구구히 목숨을 부지하옵망정 백정의자식과 형이니 아우니하옵진, 맙에 붓그럽사와 꺽정이가 가치 결의하자구 졸르옵는걸 구지 실타구 햇습더니 꺽정이 말이 우리와가치 결의안는거시 종시 딴맘을 두는것이라구 죽인다구 서들어서 어진혼이 빠젓섯소니다 만일 그때 결의에 참네하얏습드들 오늘날 꺽정이를 잡아바칠 생각이 낫습는지 마치 몰을일이외다」

「꺽정이가 제도당두 만히 죽이느냐」

「죽이다뿐이오니까 지난구월달 장수원에 모엿슬때두 한자리에서 둘을 죽인일이잇섯소이다」

「장수원에선 어째 모엿드냐」

「전옥에 잡혀가친 꺽정이의 기집셋이 처교(處絞)되기쉽겟단 소식을 꺽정이가 이천서 듯습구 구월 초닷샛날 장수원에와서 여럿슬 모아가지구 그날밤에 오간수구녕으루 문안에 들어와서 전옥을 깨치구 기집들을 끄내가랴구 회책하옵는것을 도당중의 두눔이못될일이라구 말리옵다가 잠혹하게들 죽엇소이다 그날밤은 파옥계획을 중지하게되엇습구 그이튿날은 이천서 급한기별이 와서 이천으루 물러가서 잇는동안에 전옥의 기집들이 형조 전복사(典僕司)루 넘어가서 판비들박히게되리란 소식을 듯습구 파옥계획을 따의하게되엇섯소이다」

「전옥을 라파하구 판장을 살해하구 너의눔들은 못할일이 업구나」

처음 호령한마디외에는 온언순사로 말을 못튼 포교대장이 별안간 언성을 노피엇다

謹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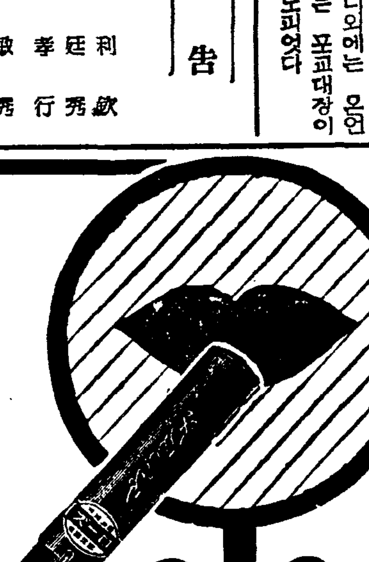
車館輦支局
顧問 朴利欽
同 黃廷秀
記者 鄭孝行
記者(總務兼) 黃紋秀
右新任 車館輦支局 白

羅州支局
記者 吳英
但新舍在錦南町 羅州支局 白

安東支局
記者(總務兼) 金璉漢
記者 張碩基
右新任 安東支局 白

紋化支局
顧問 朴鶴秀
同 任性宰
同 金炳熹
記者 朴應鎬
電話三六〇番
右新任 紋化支局 白

灰岩販賣所
販賣所主任 金才淳
右新任 維基支局 白



第一劇場

十二月二十九日晝夜부터三日間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每日三回興行 一回十二時 二回 三回七時
東寶映畫超特作
山本嘉次郎 監督
千萬長者前 後篇大會
榎本健一 主演
東寶映畫超特作
山本嘉次郎 監督
とんぐり頓兵衛
榎本健一 主演
大週間告
新春初公開 特別稀告 新興超大作 中部
正月一日부터六日까지는晝夜興行하옵고料金이一割增되오며 二十六日至三十一日까지는 頭痛强心快樂旅行의必携의新藥テリン을無料進呈하오니 만히利用하시기를바랍니다
七五五

平壤·大劇

三十一日より四日間 「新春第一週封切」
◇東寶超大作 映畫小說 京の映畫化 新潮 川口松太郎 原作 渡邊邦男 演出
新編 丹下左膳
大河內傳次郎 山口五十鈴 黑川彌太郎 主演
◇東寶特作 齋藤寅次郎 演出
ロツパのお父ちやん
古川綠波 渡邊篤 清川虹子 主演
◇RKO社特作
ラヂオの歌姬
ラオール・ウオッシュ 監督
世界の歌姬 リリイ・ポンス 主演
ニュース

桃花劇場

三十一日特別大興行 戰友 女の一いのち 各社ニュース
一月一日부터午前十時午後六時까지 夜間七時始映
二十九日卅日兩日夜間實際가지고入場하시는분에게는 頭痛、眩暈을 旅行의必要한新藥テーリン을進呈합니다
◇林守浩映畫社提供品
三の友 세동무
監督 金永煥氏
主演 李源鎔 卜惠淑
殺人千石船
◇松竹京都作品
唄の朝鮮(노래의朝鮮)
林守浩映畫部提供全發聲版
◇大每ニュース パテーニュース OK專屬歌手總動員
十二月二十九日부터三十日(二日間)
(正午正오부터中央에上映)
每日晝夜二回晝一時夜七時上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桃花町 電話龍山三一三六

映畫は日活 偕樂館

三十一日より四日間
「新春の第一週封切」
◇ワーナー社超特作
ドツト君乘り出す
ケユイ・ベーカー フランク・マキユウ ガードルド・マイケル 主演
◇日活京都大作
松田定次 監督
鞍馬天狗 [illegible]の卷
嵐寬壽郎 主演
◇日活特作
內田吐夢 監督
東京千一夜
問題になった 新形式漫畫
朝日パテ ニュース

新富座

十二月二十九日부터四日까지
(正午부터晝夜二回上映)
每日晝夜二回晝一時夜七時始映
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讀賣ニュース
◇全勝키네마社特作
まぼろし峠
監督 姓丸浩 主演 松本榮三郎 三笠照子
◇德永프로京城映畫社提供品
紅戀悲歌
監督 李圭煥氏 主演 卜惠淑
金剛合同키네마社特作
靑春十字路(新版)
監督 安鍾和氏
主演 李源鎔 金蓮實 申一仙
卅一日特別興行 其の一夜の秘密
ニュース シピオネー
一月一日부터夜間七時 午前十時午後
京城新町 電話(本局)五六七番

長篇小說

薄命 (173)

韓龍雲 作 · 鄭玄雄 畵

이혼 (一八)

순영이는 갑작이 외로워지는듯하얏다 발가벗고 손에몸을방비할만대하나도 틈지아니한채로 무인지경에 바장이는것 가텃다 그리하야 세상사람은 모두 자기를 해칠것만갓고 금수초목까지도 자기를 침노할것만 가텃다 의론히 비치는 전등까지도 냉정하야서 자기를모루는체 하는것 가태서 구천외롭고 슬펏다

『내 마음이 웨 이럴까?』

하고 도리켜 생각하야 보앗스나 그 이유가 또렷이 나서지를 아니하얏다 녀자로서、태산가티 밋고 한량업는 히망을 부치든 남편에게서 버림을 밧게되는 까닭으로 지팽이를 일은 소경처럼 몸과 마음이 허전하야서 정신상태가 그러케되는것이라는것 까지는 분명히잡아내지 못하얏다

순영이는 이때까지 꿈을 꾸드시 생각하야 오든 미래의행복은 아침 이슬이나 저녁 연기처럼 사라지고 뜻하지 아니한 불행이 산처럼 내리 누르고 조수처럼 밀려드럿다 순영이는 홍숙자가 대철이와 결혼하는데 대하야 몇마디로 만류하든 말을 생각하얏다 그중에도『나종에 후회하리라』하든말이 귀밧에 들리는듯 하얏다

순영이는 대철이와 오륙년동안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소의 불평이 업는것도 아니엇지마는 그럴때마다 순영이가도리켜 생각하는것은 언제든지물에 빠저서 죽게된 자기를 건저 주엇다는 은혜와 그기대한 대철이의 의협하고 용감한 인격 이엇다 그리하야 그런생각이날때에는 그것으로 대철이의모든 단처를무더버리고 도리어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려버리는것이 순영이게는 거의버릇이 되엿다 그것은 순영이가자기의마음을 진정하고 사단을 이르키지아니하라는 수단으로 짐짓 그러케 돌리는것이 아니라 진실한감격에서 스스로 감읍을 밧는것 이엇다 그것을 순영이가이성(異性)으로서의 대철이게너무 치혹 한것이라든지 개성(個性)이 업시 너무 맹종한것이라고 보는사람도잇지마는 하여간 순영이가 진실된 마음으로 대철이를 그러케 미더 왓든것은 사실이엇다

순영이는 눈물과 한숨이 제절로 그처지고 아푸고 쓰리든 마음이 흥분의 자유를잃엇슬때에 또다시 대철이의사정을 생각하야 보앗다 예와 마찬가지로 대철이의 은혜와 의협한 인격이 눈아페나타나기 시작하얏다 처음에는 히미하든것이 차차 분명하야지고 처음에는 조고마하든것이 점점 커다타케 된다 그러자 다시 대철이가 목전에 당하고잇는 경우가생각난다 아무라도 그러한 경우에서 그러한 기회를 엇게되면 그러한 처사가 잇슴직도하엿다 대철이 말과 진정으로자기가 실허서 어후하지는것이아니라 한때의 권도로 그리 하는것뿐이 아니라 그러케 하는것은 장래의 가족을 위하는것이라는 말이 결단코 거짓말이아닌듯 하엿다 그러케 생각할때에는 대철이 정경이 가엽고자기의 행동이 뉘웃첫다 그러자 순영이는 까무러첫다가 다시회생하는 사람처럼 정신에 생기가 돌고눈이번하야서 무엇이 제대로뵈이엇다

순영이는 대철이가 잇는곳을 알면 곳 쪼처가서 아까잘못한 사과라도 하고 대철이 말하든것을 드러주고 시펏다 그러나어데로 간것을알수가 업슬뿐아니라 가령안다고 하더래도 그방문에 차저 가는것이 대철이게 누가 될는지 모르겟다는 생각까지하얏다 그러나 대철이가 자기의 행동에 감정이 상하야서 나간길로 다른대로 가버리고 드러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나 하는 [illegible]으로 마음이 조급하다 순영이는 지나치는 흥분과 초참을수업는 감정에 지처서 벼개를 베고 누은채로 깜박하얏다

二十九日(木曜)

◇午後六時 童話『날개달린토끼』 朴仁範
◇同六時二五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俚謠散調와俳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俳唱 가、短歌 古往今來 나、唱劇調 華容道 朴東實 杖鼓 朴鍾基
◇同八時(東) 管絃樂 一、歌劇『원자ー의快活한女子들』序曲 니콜라이作曲 二、圓舞曲『南國의薔薇』요한슈트라우스作曲 三、歌劇『아이ー다』ー凱旋行進曲ー 베르듸作曲 指揮 아우그스트ㆍ트용켈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 一、新楚漢歌 二、군밤打鈴 三、달밤의배노래 四、淸川江水 五、海州念佛 宋蓮花 閔亨植
◇同九時 라디오드라마『城隍堂』一幕 ー鄭飛石原作ー 李[illegible]脚色 (配役) [illegible] 崔雲峰 順伊(그의妻) 玄舜英 金主事(山林管理人) 李白水 七星(鑛夫) 田澤二 牛車夫 劉鎭燮 巡査 金陵 (解說) 朴應冕 (效果) 李龍永 (演出) 洪一琅 (音樂) 尹[illegible]奎 (出演) 半島映畵製作所員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童話劇
◇同七時三〇分(東)歌謠
◇同八時(東)管絃樂
◇同八時二〇分(城)半島昭和十三年回顧
◇同九時[illegible]라디오(東)小說古川綠波

三十日(金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아코ー듸온合奏 (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四時 뉴ー스
◇同六時 兒童劇『눈사람』ー玄暉作 京城放送童劇研究會 指導金福鎭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年末年始行事』 申相儁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歌謠曲 一、눈물의春情(金貞) 二、鄕愁의회파람(同) 三、愛人部隊(徐鳳) 四、紅燈街의半月(同) 五、어머님前上書(李花) 六、꿈꾸는牧童(同) 七、님前화푸리(同) 李寅權 徐鳳姬 李花子 伴奏오ー케管絃團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江上에天氣 二、唱劇調 春香歌 林小香 鼓手 丁元燮
◇同八時三〇分 라디오코메디『쉰두부』ー南宮春作ー 甲 洪吐無 乙 池京順 丙 朴商翊
◇同八時五〇分 野談『女兒愛弟』 申鼎言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城) 和洋合奏
◇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一五分(城)講演
◇同七時二〇分(東)國民歌謠
◇同七時四〇分 歲末風景(上海、南京、北京)
◇同八時一〇分(大、名、東)同
◇同八時五〇分(城)同
◇同九時一〇分(東)時事解說

三十一日(土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라디오體操(同)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時報
◇午後零時五分(東)土曜콘서ー트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東) 音樂레코ー드
◇同二時(東) 同(同)
◇同四時 뉴ー스
◇同六時 이야기『今年에생긴일』 李軒求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守歲謎惑』 敎文中學 李秉岐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歲末風景 移動 안레나의街頭風景
◇同八時 歌謠曲 一、新年노리야 二、相思草 三、朝鮮八景(金) 四、哀愁의旅路 五、上海街頭 六、알구진運命(具) 七、에달픈道德 八、恨만흔자장가 九、초록빗水平線(李) 金姬壽 具松岡 李德華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同八時三五分 俗謠릴레ー 一、愁心歌와역금 二、노래가라 三、六字백이 張鶴仙 金秋月 曺弄仙 曺弄玉 申海中月 大笒 金永根
◇同九時 라듸오드라마『젊은꿈』ー李孤帆作 아나운사ー一同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아나운사ー餘技(京城) 合唱 一、二、三、四、五
◇同一〇時一〇分 아나운사ー餘技(平壤)
◇同一一時五五分(各局)除夜鐘

巡演通信

木浦에서 中央舞臺一同

노래와말과글로『유달산』이 하조타기에오자마자올라보니 사람의마음이터또한 그리조흔줄모르다 마음은 끄테서 무서움만느꼇습니다……小泉

木浦는조참슴니다 갈매기와안개와그리고바다、섬! 나는여기와서 港口의 情緖를차섯슴니다……藝頌

十二時間이나車를타는것도 조치마는港口에儒達山도매우印象에남슴니다……姜鶴石

南쪽港口에도 크리스마쓰날은 눈나립니다 잘못이루는새벽 성탄채찬양대의 맑은노래에 크리스마쓰의기억은 다시차저냇슴니다 아직눈은나립니다……春明

…………★…………

木浦에와서 한층더깨다릅니다 劇의興味를 못느낀다는 觀衆들보다도 演劇人우리들이 더슬프다는것을요 問題는劇을좀더재미잇게 그리고 훌륭한조흔演技를보여주고 못보여주는데잇는것을 그야 勿論못알어보는 責任이 觀衆의無知에도잇겟지요……徐成大

出發時부터南鮮出演더욱 木浦란곳을바갑게 마지할뿐으로밋지아녓소 그 것은 西鮮公演의경험으로 짐작이엿스나 初日부터 滿員이며 三日엔 初日이상의滿員 이것은참말 新劇團의喜消息……裵龍

내귀는 바다꺼질이가 울려치는 소리가그립슴니다(양ㆍ코트ー作)……朴東和

奇蜂이잇는 浦口에 日氣 더욱흐리매 港口의情調 더욱 神秘한것갓소!……申賢均

木浦는、[illegible] 木浦公演大成功…… 鄭景俊、裵龍星……

『어린이時間』 (二十九日 後六、〇〇)

童話『날개달린토끼』 朴仁範

오롤이집은 서울한쪽에 오롤거리고 흘으고잇는 한강(漢江)기슭에 잇섯습니다 겨울이되며는 거울가튼어름이 얼어 찔매타기가 여간조치안헛습니다 하로오롤이는 뭉시바람이 불던날 우산두개를 손에들고 찔매를탓드니 바람에불려서 여간호사스럽고빨느지안컷드니요 아ー그랫드니 고만섭매는비행기가티 하늘로 날러올려갓습니다

그래서 오롤이는 지금까지 보지못한이상한 나라 훌구경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하고놀고 나무가지가 춤을추고 사과가방글방글 그빨간두볼이우숨에 넘처잇고 이상한새가 노래를부르고잇 얼마를 얼마를놀다가 오롤이는 문득 어머님과 아버님생각이낫습니다 그래서 조흔구경도실혀서 올고잇섯습니다。오롤이는어떠케 집에돌아왓슬까요

『라디오코메디』 (三十日後八、三〇)

『쉰두부』ー南宮春作ー

甲 洪吐無
乙 池京順
丙 朴商翊

여기세가지형(型)의사람이잇슴니다 문둥답서형、똘똘형、척형 이중똘똘형은 여성(女性)입니다 척형이란무엇이냐 아는척하는것입니다 문둥답서형은 깨뜨이버지문둥형은 노마어머니 척형은안주사(安主事)입니다 이각각 남유다른 특징을가진 세가지형의 인물들은 기상천외(奇想天外)한 말을주고밧고합니다 그런데그중에 뛰여든것이 세상에그러케흔하고 만흔가지각색물건중에서고르고골라서 두부가한채ー그두분인쪽은 상당히쉰(腐敗)두부가한채입니다 장차어떠한 기혁상(奇現象)이생기게될는지요

『管絃樂』 (二十九日 後八、〇〇)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아우그스트ㆍ용켈

(1)喜歌劇『원자ー의快活한女子들』序曲 ー니콜라이作曲ー

『니콜라이』는 一八一〇년독일『쾨니히스불그』에서나아 불과삼십세로『베르링』에서 그짧은생애를 마첫습니다 그동안그는 수곡의가극을 창작하얏는데 이것은 그의죽엄의 바로전에지은 마지막작품으로 이서곡(序曲)은 쾌활우미(優美)또『유ー모라스』한것입니다

(2)圓舞曲『南國의薔薇』 ー요한슈트라우스作曲ー

『월쓰』의 왕(王)이라는『요한슈트라우스』는 음악(音樂)의서울『원나』에서 나아 십구세기 경음악(輕音樂)작가의제일인자로지는이엇습니다 그는 무수한 원무곡(圓舞曲)을지엇는데 이곡도 경쾌전아(典雅)한 그의특징을잘보여준것의 하나입니다

(3)歌劇『아이ー다』ー凱旋行進曲ー ー베르디ー作曲ー

유명한 여가극『아이ー다』의 개선행진곡은 제이막에나오는것으로 만흔행진곡중에서도 제일 호화현란한것으로 해진곡중백미에속합니다

13—11D

月經不順に

더되기쉽고 不規則、其他 障害를正規로ー

女性의身體가 健康한가아닌가는 每月의月經의狀態로 標準이된다고 醫家들이 말하는거와가티 外見으로는 健康하게보이는분도 月經이不順하야 月前後에 下腹이 쥐여뜻는것가치 아프든지 氣分이沈鬱하여 괴롬이만흔분은 健康한분이아니며 漸漸몸이 쇠되고 잇는것입니다。每月귀치안흔 괴롬을당하는분은 湯藥中將湯을 잡수십시요。湯藥은 舊式이라고 생각하는젊은婦人도게시나、이것은藥物의 知識이업스신 緣故이며 어것을漸新한제하여 錠劑나粉劑로製劑하면 效果는 半減하게되는것입니다。中將湯의成分은、體內의停滯해잇는 個所를 賦活시키며 더욱이 子宮의臟器에內部로부터 效力을發揮하여 血行을促進시키므로 月經은 正常的으로되여 婦人病이快癒됩니다。價 五十錢부터

中將湯

強性強精藥

男子性器障害(發育不全)早漏에百發百中

中國名藥淸導補腎丸은 男子性器障害、不自然行爲或은其他로 發育不全한것과 先天的으로 [illegible]

淸導補腎丸 六十日分 十圓

早漏防止

(藥報送呈)

腸カタルに わかもと

12月30日封切

讀賣新聞連載

新篇 丹下左膳

原作・川口松太郎
演出・[illegible]

大河內傳次郎・主演

讀賣新聞全讀者をうならせた 新篇丹下左膳 左膳の片腕はどうして・失なったか?

エノケンのびっくり人生

原作演出 山本嘉次郎

榎本健一・霧立のぼる主演

灯下の若武者

演出・中川信夫

長谷川一夫主演

丸山定夫・花井蘭子・竹久千惠子・大川平八郎

フオックス入社第一回作品

キートンの大魔術

新春へ放つ第一彈

1月4日封切

[illegible]映畫社提供

地獄の天使

ハワード・ヒユーズ主演 ジーン・ハーロウ

少年航空兵 三和商事映畫部提供

陸の若鷲

若劇

血と泥土の戰列に聖化されゆく人間性の頌歌

火野葦平著

土と兵隊

國民皆讀の文學 川端康成

火野葦平氏の「土と兵隊」が、國民皆讀の文學である所以は、杭州灣敵前上陸とその後の進軍の戰記でありながら、それは同時に、日本民族が苦難を超えて發展して行く姿の、實に適切な象徴となつてゐるからである。戰爭のなかから、銃後の生活や道德にも、強い示標を投げかけてゐるからである。戰地の勞苦を最も眞實に描きながら、かくの如く光明と希望の書となり得たといふことは、現在の日本人全體にとつて、美しい感動である。新しい生き方を導き出す。これは目覺めの書である。また、愛する者を戰に出してゐる人々に、これはなによりも慰めの書である。

「土と兵隊」の殊特性 豐島與志雄

火野葦平氏の「土と兵隊」は、特異な戰爭文學である。作者は戰爭そのものゝなかに、人が日常生活のうちに安居するやうに、沒入し安居してゐる。だからこゝでは、異常事が凡て日常事であり、また日常事が凡て異常事である。そして戰爭そのものゝ中に於ての、全身的な體驗と責任とを持つた、平凡なやうで而も深い思惟が盛られてゐる。日常生活に對立さして戰爭を眺めた多くの文章のなかで、この作品が特異な地位を占める所以も、そこにあるのであらうか。そしてこれはまた、日本的なものゝ一面の現はれでもあり、日支事變の聖戰たる特質の一面の現はれでもあるといふ。他の考察をも強調するであらう。――いろいろの意味で多くの人から精讀されるべき作品であることを、私は信ずる。

定價六拾錢 送料六錢 東京芝區新橋七丁目 振替東京八四〇二〇番 改造社

新選文學全集 四回配本

女流短篇傑作集

新年一月一日全朝鮮一齊發賣!!

이女流短篇集은 女性文化의 最大發露로써 우리文壇의 女流文人七氏가 登場하여 그의最大傑作으로 自信하는 名篇들을 蒐集한것이니 實로 女性界의 자랑일뿐 아니라 우리文壇의 한異彩가아닐수업다 더구나 그 纖細하고 純粹하고 明晳한 筆致는 우리가 생각도 할수업는 女性獨特의 世界를 그린것이니 新年劈頭에 잇서서 一大巨彈이 아닐수업다 一般文學愛好家는 勿論이오 적어두 朝鮮文化에 關心을 가지는 사람으로는 누구나 一讀할 册임을 말하여둔다

四六版豪華美裝 一册定價一圓二十錢 書留送料二十二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武田藥品

胃酸過多 胃潰瘍의 最新治療藥

속쓰림胃痛

이런症狀에는注意!

食後에 속이쓰리고 시디신胃液이엽으로 올라오고 空腹時에胃가아프고이런 症狀이잇스면 胃酸過多症을 이르키고 잇는것입니다

만일治療를게을리하면 胃의粘膜이 漸次로胃害되야潰瘍이잇는 胃潰瘍이되여서 吐血을하던지 或은 生命을잃기는 危險한胃癌이 될念慮까지도잇습니다。

ノルモザン錠은 珪酸아루미늄을 主效分으로한 最新의胃酸過多治療劑로서 胃壁의 保護、過剩胃酸의吸收並 胃液의分泌抑制等의優秀한 作用에依하야 속쓰림 胃痛을없에고 胃酸過多、胃潰瘍의治療에 卓效를엇게됩니다。

效能 胃酸過多症・胃潰瘍・胃痛・속쓰림・트름・신물・溜飮・胃가다루・便秘・宿醉・惡醉 船車暈

價藥 三日分(五〇錢) 一週間分(一圓) 十六日分(二圓) 一月分(三圓五〇錢) 二月分(五圓) 各地藥店에있습니다 外에『小粒ノルモザン』잇음 效能藥價는同一합니다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산)

製造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